

IIRI Online Series

불확실성의 시대 경제안보전략

김 주 희

국립부경대학교 부교수

2024. 2. 27

불확실성의 시대 경제안보전략



김 주 희 | 국립부경대학교 부교수

초불확실성과 경제안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중심의 보호주의적인 경향성의 증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은 석유, 가스, 핵심 광물 및 소재 공급망을 교란하며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은 안보화되며 경제 문제를 정치 의제로 전환한다. 탈냉전 이후 형성된 상호의존의 심화로 길고 복잡한 공급망이 가져온 취약성이 무기화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으며 덧붙여 미국 대선의 결과가 가져올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공급망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이다.

확대된 안보 환경 속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은 전통적 동맹국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역량의 증대는 결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와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변화시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동맹관

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주요 산업 전반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공통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따라서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전략의 추진은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경제안보전략: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글로벌 공급망 체제에서 핵심 자원이 전략 무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희토류 등 주요 핵심 광물, 소재의 경우 미-중 대립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했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핵심 광물, 소재의 공급 측면과 아울러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청정에너지 분야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기술 점유율이 높아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프렌드쇼어링은 개방된 시장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공유하는 동시에 노동 및 환경 표준을 실행하는 국가들을 포괄하는 개방형 파트너십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방형 파트너십은 경제 및 규제에서 같은 입장을 추구하는 민주국가로 구성된 무역블록의 재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공급망 거버넌스에서 프렌드쇼어링의 의미는 지금까지 중립적인 의미에서 다변화를 추구했던 지리적 리쇼어링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에 새롭고 강력한 지정학적 측면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항공우주, 자동차, 반도체, 의료기기 및 제약과 광물 에너지 그리고 농업자원과 가공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효율성,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이라는 기존의 원칙보다 정치적 조응과 합의가 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결국 단순한 지리적 공급망이 아닌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으로의 재편은 미-중 양자 선택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더욱더 높이고 있다. 물론 공급망 재편의 과정에서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와의 규칙 설정을 위한 협력을 배제한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디커플링(de-coupling)에서 디리스크잉(de-risking)으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대결의 비용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안보전략은 디커플링(de-coupling)에서 디리스크잉(de-risking)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의미는 일반적으로 중국에 관한 기술 및 투자 제한은 지속적으로 시행하되, 고위급 정상회담과 무역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관계는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목표는 정치 및 경제영역 모두에서 중국 요인으로 인한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제 안보 전략으로 디리스크잉전략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 이어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이 전략 개념을 채택하여 중국에 대한 디리스크잉을 강조하는 등 빠르게 지지 수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디리스크잉은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첨단기술 일부분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디커플링은 진화하여 이제 일반적인 분리에서 차별적 분리까지 확장된 의미가 있으며, 주요 첨단기술이 중국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개념의 가장 큰 차이는 디커플링은 경제 주체 간의 관계의 단절을 전제하지만, 디리스크잉은 주체 간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으며 위험을 회피하는 합리적 관계의 관리를 강조한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는 디리스크잉이 디커플링보다 온건하고 덜 대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디커플링의 개념과 현재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디리스크잉의 정의와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크잉으로 전환했을까?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로 디커플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미국의 경제 및 무역 정책의 변화를 시사한다기보다는 재계를 달래고 동맹국들의 저항을 완화하여 협력하기 위한 외교 전략으로 조금은 온건한 표현으로 디리스크잉을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 추가적인 발전과 성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있다. 유럽의 디리스크잉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면서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자율적인 대중국 전략 설정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제안보전략의 방향성

디리스크잉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방의 기업들은 디리스크잉에 동조하기보다는 국가들의 전략과 규제에 적응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택한다.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감한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둔화와 불투명한 규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HP에서 Apple에 이르는 기업들이 기술 및 전자 제품 생산을 동남아시아, 인도, 멕시코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규제 현실에 대응하는 것일 뿐이다. 많은 기업이 중국 내 제조를 다른 국가 공급망에서 분리하는 등 중국용과 그 외 국가용 기술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은 디리스크잉전략이 의미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디커플링과 디리스크잉은 차이가 없다고 무시하며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도 용인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중국은 서구 제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노력해 왔으며 중국의 공산품 무역 흑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이 전략을 친환경 에너지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석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전 세계의 중국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공급망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유럽으로의 중국 전기자동차 수출 급증은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디리스크잉의 개념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을 사용하는 행위자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행위자들이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디리스크잉전략은 양자택일만이 우리

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불확실한 현 상황에 대한 관망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유사입장국가와의 공조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디리스킹은 경제안보전략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익에 맞는 K-경제안보정책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저자 소개

김주희 교수는 국립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한독사회과학회 회장과 글로벌 다층거버넌스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동 대학에서 유럽과 동아시아의 비교지역주의 분석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 분야는 경제 안보, 유럽과 독일 외교안보정책, 다자주의, 국제협력이다. 주요 연구업적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순환경제』 (공저, 2023),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전쟁: 기술과 정책』 (공저, 2022), 『EU의 디지털 공공외교 전략과 영향』 (공저, 2021), 『Asian Geopolitics and the US-China Rivalry』 (공저, 2021), 『미중 경쟁과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공저, 2020), "경제-안보 상호작용의 지경학: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유럽의 대응," (한독사회과학논총, 2022), "공급망 위기의 경제안보: 독일의 반도체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2022), "열린 체제와 경제-안보 상호작용의 지경학 독일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 분석," (한국유럽학회, 2022), "포스트 코로나 19, 한국-EU의 경제안보 협력,"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미·중 경쟁 시대 독일의 전략적 자율성," (한독사회과학논총, 2021)외 다수가 있다. (Email: kim.joohee@pknu.ac.kr)

